

한국중공업(주) 사옥

Headquarter of Hankook Heavy Industry Co.

(주)범건축 + K. P. F

Designed by Beom Architects & K. P. K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3,096.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4종 미관지구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립집회시설
건축면적	1,757.54㎡
건폐율	56.76%
연면적	51,496.73㎡
용적률	981.83%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층수	지하9층, 지상 22층
주차대수	451대 - 자주식 : 313대, 기계식 : 138대
조경면적	479.24㎡
외장재	외벽 - 알미늄 슈트, 화강석, 지붕 - 콘크리트 평 슬라브위 슈트방수, 창호 - 불소수지 코팅 알미 늄, 24mm컬러복층유리
구조	전우구조, WEIDLINGER ASSOCIATES
설비	한일 M.E.C(기계), 한양전설(전기)
시공	(주)동부건설
감리	(주)범건축



뱅뱅사거리...

강남지역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장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낮에는 그저 어찌다 지나는 뜸한 행인이 있을 뿐이고, 밤이면 네거리 전체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적막한 거리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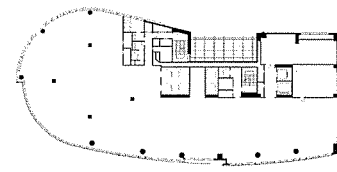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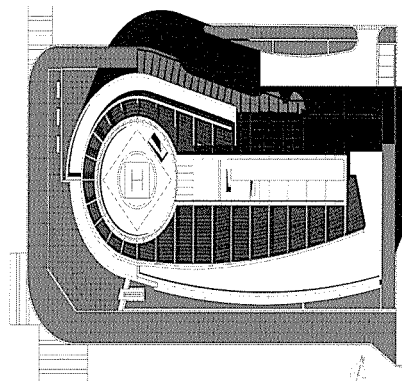
이곳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으뜸인 계획 목표였다. 강남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양재역 사거리에서 맑고 쾌청한 날이면 북한산이 시각의 끝점으로 웅장한 강남대로-진정한 의미의 대로이다-를 따라 북쪽으로 언덕을 넘으면 바로 시야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건물. 강남대로의 양쪽을 메우고 서있기 시작하는 높은 정형의 건물군과 확실히 구별되는 독특한 조형성과 장소성을 지닌 건물.

어쨌면, 대지의 위치 자체가 이미 강력한 상징성과 인지성을 지니고 있기에, 조금은 드세고 튀는 건물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일년에 며칠 되지 않는 날이긴 하지만, 쾌청한 어느 날의 쪽빛 하늘과 푸른 북한산을 배경으로 화려한 대

비를 구사하는 조금은 화려한 건물로 조형은 완성되었다.

바로 이곳, 뱅뱅 사거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층 건물군.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는 있지만, 정형화된 상자형태의 건물과는 구분되는 부드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우아함까지 갖춘 독특한 조형의 건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우악스러운 형태의 정형보다는 부드러운, 그리고 잘 분절되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다 흐르도록 곡면을 채택하여 다른 건물과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입면을 구사하였다. 한 대형 블록의 모서리, 많은 보행자가 건물의 신설로 인해 감각적 인지가 끊기지 않도록 세분화되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곡면, 아니 바로 원통의 조형이 바닥으로부터 시작되고, 원경에서 느껴지는 수평의 인상이, 가까이 에서는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수직 멀리언(mullion)과 삼각형 장식의 보행자의 시선을 즐겁게 할 것이다. 많은 면적을 할애한 모서리의 보행자 전용공간과 건물의 내부를 반영한 재미있는 조형물, 지하로 직접 통하는 선크기든도 즐거운 머무름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속의 보석 같은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